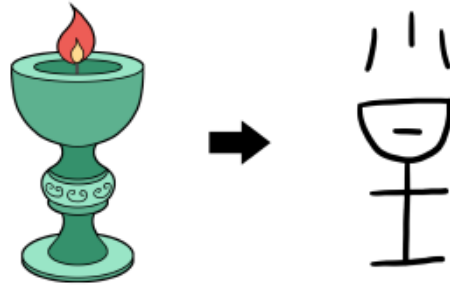


3(2)  
-  
491

상형문자 ①



皇

임금 황

皇자는 '임금'이나 '봉황'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皇자는 白(흰 백)자와 王(임금 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금문에 나온 皇자를 보면 촛대 위에 불이 밝혀진 모습이 皇<sup>ㄱ</sup>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皇자의 본래 의미는 '빛나다'였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皇자가 自(스스로 자)자와 王자가 결합한 형태로 바뀌면서 '임금'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었다. 소전에서의 皇자가 마치 자신을 황제로 칭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火(불 화)자를 더한 煌(빛날 황)자가 '빛나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皇

금문

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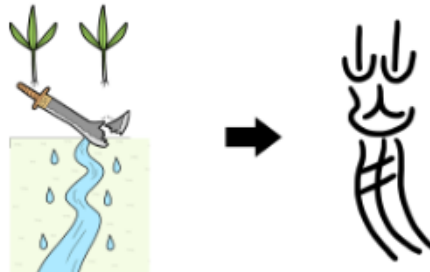
소전

皇

해서

3(2)  
-  
492

회의문자 ①



荒

거칠 황

荒자는 '거칠다'나 '흉년', '폐기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荒자는 卩(풀 조)자와 亡(망할 망)자, 川(내 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亡자는 부러진 칼을 그린 것으로 전쟁에서 패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의미에서 '망하다'나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여기에 卩자와 川자가 결합한 荒자는 풀 한 포기(卩) 물 한 모금(川)조차 없는(亡) 곳이라는 뜻이다. 즉, 거친 황무지를 뜻한다.

荒

금문

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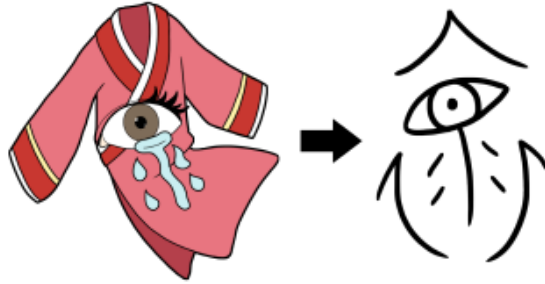
소전

荒

해서

3(2)  
-  
493

회의문자 ①



懷

懷자는 '품다'나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懷자는 心(마음 심)자와 褻(품을 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褻자는 衣(옷 의)자에 目(눈 목)자를 결합한 것으로 '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품다'라는 뜻은 褻자가 먼저 쓰였었다. 금문에서 나온 褻자를 보면 衣자 안에

품을 회

눈과 눈물이 眇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눈물을 가슴에 묻고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褻자는 자신의 슬픔을 남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품다'라는 뜻으로 쓰였었지만 소전에서는 여기에 心자를 더해 懷자가 감정과 관련된 글자라는 뜻을 표현하게 되었다.

褻

금문

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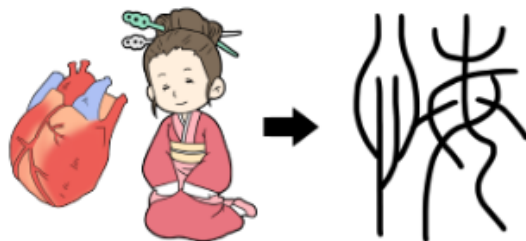
소전

懷

해서

3(2)  
-  
494

회의문자 ①



悔

悔자는 '뒤우치다'나 '후회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悔자는 心(마음 심)자와 悔(매양 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悔자는 비녀를 꽂은 여자를 그린 것으로 이전에는 母(어미 모)자와 같은 뜻으로 쓰였었다. 이렇게 어머니를 뜻하는 母자에 心자가 결합한 悔자는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표현한 글자이다.

뒤우칠  
회:

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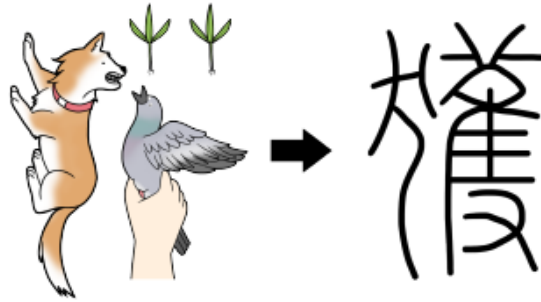
소전

悔

해서

3(2)  
-  
495

회의문자①



獲

얻을 획

獲자는 '얻다'나 '붙잡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獲자는 犬(개 견)자와 獲(자 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獲자는 풀숲에 있는 새를 손으로 잡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얻다'나 '붙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새를 붙잡는 모습을 그린 獲자에 犬자가 더해진 獲자는 개를 풀어 풀숲에 있는 새를 잡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도 보면 獲자나 獲자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獲자는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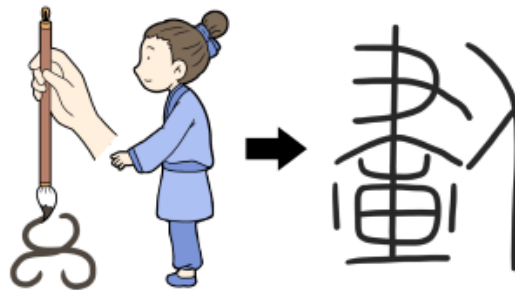
소전

獲

해서

3(2)  
-  
496

회의문자①



劃

그을 획

劃자는 '긋다'나 '계획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劃자는 畫(그림 화)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畫자는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그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왜 '계획하다'라는 글자에 칼이 왜 그려져 있는 것일까? 사실 금문에서의 劃자는 刀자가 아닌 人(사람 인)자가 쓰여 있었다. 그러니 劃자는 사람이 붓을 잡고 글이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인 것이다. 하지만 소전에서는 글자가 바뀌면서 본래의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게 되었다.

劃

금문

劃

소전

劃

해서

3(2)  
-  
497

회의문자①



橫

가로 횡

橫자는 '가로'나 '옆', '가로지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橫자는 木(나무 목)자와 黃(누를 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黃자는 패옥을 두른 황제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橫자는 본래 대문을 걸어 잠그는 '빗장'을 뜻했었다. 옛날 대문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문을 걸어 잠그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橫자는 후에 '가로'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횡령(橫領)이라는 뜻이 그러하듯이 고대에는 '가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橫자는 주로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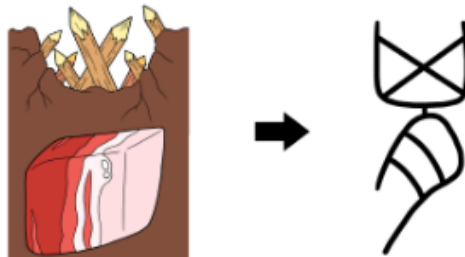
소전

橫

해서

3(2)  
-  
498

회의문자①



胸

가슴 흉

胸자는 '가슴'이나 '도량'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胸자는 月(육달 월)자와 匈(오랑캐 흉)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匈자는 凶(흉할 흉)자와 勹(쌀 포)자가 결합한 것으로 '흉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역사책에 나오는 '흉노족(匈奴族)'의 뜻이 이러하다. 그러나 여기에 쓰인 匈자는 단순히 '품다'라는 뜻만 전달하기 때문에 胸자는 '가슴'을 뜻하게 되었다. 胸자는 소전까지만 하더라도 月자와 凶자가 결합한 형태였지만 해서에서부터는 匈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胸

소전

胸

해서

<div>3(2)</div> <div>-</div> <div>499</div>	<div>회의문자①</div> <div> </div>				
<div>稀</div>	<p>稀자는 '드물다'나 '드문드문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稀자는 禾(벼 화)자와 希(바랄 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希자는 수를 놓은 천을 뜻하는 글자로 '바라다'나 '드물다'라는 뜻이 있다. 稀자는 본래 모를 심는 간격을 뜻했던 글자였다. 모를 심을 때 간격을 너무 촘촘하게 하면 바람이 통하지 않아 벼가 썩게 된다. 그래서 稀자는 '드물다'라는 뜻을 가진 希자에 禾자를 결합해 모의 간격을 '드문드문하게 한다.'라는 뜻을 표현했었다. 다만 지금은 '드물다'라는 뜻만 남아있다.</p>				
<div>드물 희</div>	<table> <tr> <td> <div> </div> </td><td> <div> </div> </td></tr> <tr> <td> <div>소전</div> </td><td> <div>해서</div> </td></tr> </table>	<div> </div>	<div> </div>	<div>소전</div>	<div>해서</div>
<div> </div>	<div> </div>				
<div>소전</div>	<div>해서</div>				
<div>3(2)</div> <div>-</div> <div>500</div>					
<div>戲</div>	<div>형성문자①</div> <p>뜻을 나타내는 창과(戈 ㄱᄇᆞᆫ 창, 무기)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虞(희)가 합(합)하여 이루어짐.</p>				
<div>놀이 희</div>					